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19.04.27.~2019.07.26.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맡아 운용하고 있는 펀드애니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펀드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이익은 얼마나 냈는지 같이 살펴 볼까요.

펀드가 보유한 업종 중에 증권, 통신 업종 및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내었고 이외 대부분의 업종은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가운데 보험, 유통업, 화학 업종, 의약품 업종 등의 부진한 성과가 더욱 두드러져 시장보다 다소 낮은 성과를 기록하였어요. 국내 증시는 동 기간 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의 진행과정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난 3개월은 국내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슈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기업들이 일본에서 독점으로 공급받다시피 하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재료들에 대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두 기업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답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으로부터 비롯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어요. 이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아 중국의 경기 상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가 심화되고 금리 대비 높은 배당수익률을 생각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줄어들었어요. 다만, 이렇게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다 더 중시하는 무역을 하는 시기인 만큼, 기업 본연의 자체적인 역량이 뒷받침되어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우리 주니어 경제박사 펀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기업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답니다.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19. 07. 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6.65%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19. 04. 27. ~ 2019. 07. 26.) -6.65%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4.62%인 것에 비하면 2.03%p만큼 낮습니다.

최근 5년 수익률

+15.85%

비교지수 : +2.62%

비교지수대비 : +13.23%pt

최근 3년 수익률

+9.27%

비교지수 : +2.40%

비교지수대비 : +6.87%pt

최근 1년 수익률

-10.63%

비교지수 : -8.56%

비교지수대비 : -2.07%pt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4,369 백만원

순자산 총액

-6.63%pt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6.63%pt 줄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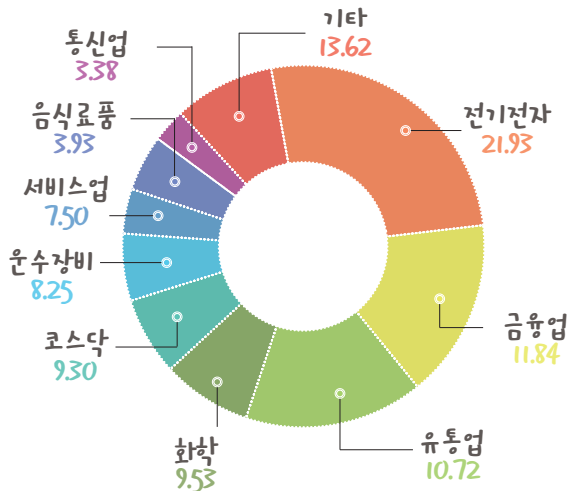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주요.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2019. 07. 26. 단위: %)

1위	삼성전자	16.27	6위	KCC	1.70
2위	LS	3.13	7위	삼성물산	1.69
3위	CJENM	2.19	8위	현대모비스	1.63
4위	현대차	1.89	9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59
5위	SK텔레콤	1.81	10위	LG전자	1.56

2019년 7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은 지난번과 같이 삼성전자, LS와 같은 종목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나요?>

LS

LS

지주회사로서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속회사는 생활용 및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케이블과 음성, 영상 등을 송수신 하는데 쓰이는 통신용 전선을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CJ ENM

CJ ENM

미디어&엔터테인먼트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tv, Mnet 등의 방송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영화 및 음반 제작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으로 항공기 엔진을 개발, 생산 및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방산업 또한 하고 있어 군 장비로 쓰이는 장갑차, 포탄 등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보나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19. 07. 26.

(단위 : 백만원, %)

매수	
수량	금액
107,897	3,701

매도	
수량	금액
130,014	3,434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연환산
13.80	55.37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18.10.27 ~ 2019.01.26
11.19

2019.01.27 ~ 2019.04.26
10.30

2019.04.27 ~ 2019.07.26
13.80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유튜브 이야기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생들의 장래희망 1위 직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버)'라고 해요. 최근 뉴스에는 6살짜리 아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유튜브 채널이 월 40억에 가까운 수입을 낸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하나의 직업처럼 삼아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유튜브란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진 기업이고 무엇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아보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유튜브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스티브 첸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유튜브를 창업한 2005년, 그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 후 그 모임을 찍은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할 방법을 마땅히 찾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핸드폰이라는 개념조차도 등장한지 오래되지 않아 서로 문자메시지로 짧은 글 정도만 주고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첸은 과거 코딩을 했던 경력을 살려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동영상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유튜브를 창립해요.



하지만 유튜브는 초창기에 낮은 인지도로 인해서 생각보다 쉽게 성장하지 못해요. 유저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는 있었으나 그 콘텐츠가 퍼져나가는 데에는 제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유튜브에 올라온 콘텐츠들을 다른 모든 사이트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로부터 유입된 유저가 별다른 로그인 없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했어요. 돌아보면 갈수록 영상 매체라는 수단이 중요성을 높여갔던 과거 흐름에 있어 이러한 유튜브의 결정은 동영상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며 전 세계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이 모두 아실만한 기업인 구글(Google)은 이러한 유튜브의 잠재 가치를 알아보고 유튜브 창립 이듬해 인수를 결정하게 돼요. 유튜브는 구글의 자회사가 된 이후에도 꾸준히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되어 영상 관련 서비스 플랫폼 업체 내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앱 조사 기관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는 2018년 2월 들어 처음으로 카카오톡의 사용시간을 역전하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으로 등극했어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pixabay)

주) 네트워크 효과 :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유튜브 이야기

그렇다면 유튜브는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까요? 바로 광고 수입이에요. 유튜브 영상을 틀기 전에 나오는 광고들이 유튜브와 유튜버들의 주 수익원이에요. 콘텐츠 시청자가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그들이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은 더 커진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특정 유튜버가 만드는 콘텐츠가 유명세를 타면서 그 유튜버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여러 기업들은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하기도 한답니다. 과거 TV를 통해 영상매체를 접했을 때는 유명한 연예인 위주로 등장하는 광고가 주를 이뤘지만 오늘날과 같이 영상을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진 시대에는 1인 방송 광고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유튜버들이 만드는 콘텐츠도 형식과 제약이 공중파 TV보다 덜하기에 광고 또한 자신만의 색깔로 재미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미디어 조사업체에 따르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MCN 업체가 주니어경제박사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바로 DIA TV와 연관이 있어요. DIA TV는 이러한 MCN 업체 중 하나인데 소속 유튜버로서 대도서관 TV, 뽀빠, ToyMonster, 허팝, 보검 TV 등이 있어요. DIA TV는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 DIA TV

비교적 많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는 CJ ENM이라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각해보면, DIA TV 소속 유튜버들이 성장할수록 CJ ENM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고 이는 다시 CJ ENM 주가가 오르는 데 기여하면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수익률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주니어 경제박사 여러분, 앞으로 유튜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운전 중에도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의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도 유튜브가 더욱 성장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주식)의 3개월 수익률은 -6.65%로 비교지수 수익률 -4.62%를 2.03%pt 하회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X 90% + CD91 X 10%)

이는 KOSPI, KOSDAQ이 하락하며 펀드의 보유 종목도 영향을 받아 절대적으로 손실을 기록하였고 펀드가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 유통, 음식료, 금융 등 업종과 지주사가 부진한 성과를 기록한 데 기인합니다.

<운용경과>

주식시장은 여전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태도 표명,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의 진행과정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7월 들어 각각의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일본의 수출규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되며, 국내 증시는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의 임상 실패 등 악재의 발생으로 KOSDAQ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실적 증가의 가시성이 높고 높은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증권, 통신 업종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이 대두되었던 측면은 있었지만 전기 전자 업종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외의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였으며 실적 부진으로 보험, 유통업, 화학 업종과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며 의약품 업종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펀드는 KOSPI의 상승에도 주가 소외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대형 우량주와 향후 2~3년 사이에 기업가치 상승이 진행될 업체들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장 가치가 있는 중소형주의 편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심화 및 금리 대비 높은 배당수익률을 감안 시 KOSPI 지수의 하방 지지력은 단단해 보입니다. 다만 실적 개선 시점이 지연되고 있으며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소외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제한된 범위 내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격화 완화, 유럽의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감소, 한국 및 각국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입니다. 면밀히 검토하며 낮아진 지수 레벨에서는 업종 내 대표 우량주,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 주주 환원 등으로 인한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으로 업종별 순환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속에 글로벌 경기에 따른 수혜 업종의 연관성도 과거 대비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 본연의 자체적인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기의 둔화, 불확실성의 확대, 성장기회의 희소성에서도 혁신, 지배력 확대 등 경쟁력을 높여가는 기업을 찾는 과정을 지속하며 저평가된 우량주의 편입에 집중하여 펀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